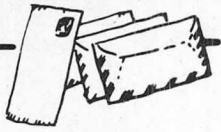


## 모니터 통신



### 대구 경북지역 김노식 모니터

#### ○ 돼지 전염병예방 접종실시

▶ 경상북도는 돼지전염병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돼지콜레라와 돼지위축성비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약품구입 시 1천 4백60만원을 보조지원 실시하는데 돼지콜레라는 20만마리 돼지위축성비염은 임신한 돼지 1천마리 광견병은 3월령 이상된 모든축군 2만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축산농가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대구에 돼지콜레라가 발생, 가축사육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대구시 북구 학정동 818번지 조재조씨집에 기르는 돼지 23마리 중 10여마리가 지난달 말부터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콜레라 증세를 일으켜 19일 현재 1마리는 죽고 9마리는 앓고 있다.

대구시는 수의사의 검사결과 돼지콜레라로 밝혀내고 수의사 25명을 동원, 지난 6일부터 주변 사육농가의 1만 8천마리의 돼지를 상대로 예방주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과 더불어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 1만마리분을 배정,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각구청별로 예방을 실시키로 했으며 두당 시술비는 농가부담 5백원, 市費 2백원이다.

#### ○ 돼지출하창구 다원화로 도매시장 물량공급 원활전망

대구가 5월부터 돼지출하체제를 다원화시

키자 소비지 시장창구인 대구도매시장 및 축산기업조합은 양돈협동조합 입장과는 달리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축산기업조합 대구시지부는 그동안 돼지출하창구 일원화로 물량공급이 원활치 않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같은 현상은 빚지않을 것 이라고.

도매시장인 대구신홍산업도 영세사육 농가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처사 라고 주장했다.

#### ○ 축산물 가격오름세

경북 김천 금릉지방에서는 울들어 축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폭락했던 돼지가 72.7%까지 오르고 닭이 57%나 올랐으나 송아지 값만은 6%가량 내렸다.

김천축협에 따르면 울들어 축산물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돼지값이 1월초에 90kg짜리가 82,500원하던 것이 3개월이 지난 현재 72.7%인 6만원이 올라 142,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닭 값도 1kg에 7백원이던 것이 1,100원으로 57%가 올랐다.

또 소 값은 한우 4백kg 암소를 기준으로 1월초에 1,418천원하던 것이 42천원이 올라 1백 45만원에 거래되고 계란값도 대란을 기준으로 45원하던 것이 47원으로 2원이 올랐다.

